



[일반 논문]

## 북한의 한문학 연구동향과 한문 교육, 고전소설 연구 현황

Chinese writing research and Chinese writing educational  
of North Korea and classical novel research

전영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차례

- |                    |                    |
|--------------------|--------------------|
| 1. 서론              | 3) 북한의 한문교과서 분석    |
| 2. 북한의 언어정책과 한문교육  | 3. 북한의 고전소설 평가와 전승 |
| 1) 북한의 언어 정책과 한문연구 | 1) 고전소설과 민족적 정서    |
| (1) 북한의 언어정책       | 2) 고전소설에 대한 평가     |
| (2) 북한의 한문 연구      | 3) 인민교양을 위한 개작     |
| 2) 북한의 한문교육 목적과 체계 | 4. 결론              |

### 1. 서론

본 연구는 북한의 고전에 해당하는 한문교육과 고전소설 특성과 현황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한문교육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고전소설에 대한 평가와 전승 양상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 한문은 ‘고대어’로 분류되며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며, 한문교육의 비중도 극히 낮다. 한문교육은 실상 한자를 익히는 것에 다를 바 없다. 북한에서 고전소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다만 소설이라는 하는 내용적 특성과 형식적 특성이 민족적 형식으로서 현재성이 강조되면서 인민교양을 위한 수단으로 개작,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이 논문은 2008년 11월 15일 제8회 국제한인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을 보완한 것임.

북한은 1966년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를 제정하면서 표준어와 다른 새로운 표준어 체계를 정립하였다. 시기적으로 유일사상체계의 형성과 맞물리면서 북한의 언어정책은 순수한 민족어를 지키지 못하고 오염시킨 남한의 언어에 대립하는 언어로서 ‘문화어’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적 자주성을 지키는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북한에서는 문화어의 확산과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국제표준어 사업이 확대된 최근에도 언어의 순결성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말 다듬기 사업은 생활 속에 뿌리박힌 외래어를 우리 말로 바꾸는 것이었다. 특히 한자어는 우선적인 다듬기 대상이었다. 대대적인 우리말 다듬기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기본적인 한자교육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언어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문교육 목적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언어정책과 한문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다른 목적은 고전소설에 대한 평가와 계승에 대한 분석이다. 북한의 고전소설이라고 할 때, 고전소설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남한의 고전소설과 같은 의미의 고전소설로 학문적 대상으로 언급되는 근대 이전에 창작된 고전소설 작품을 말한다. 이 둘의 의미는 학문적 대상이나 교양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 고전소설은 원본이 인정되지만 교양을 위해 유통되고 있는 고전소설은 북한 당국의 정책적 목적과 방향에 의해 개작되었다. 동시에 현대소설의 전통을 고전소설의 특성에 찾으면서 전승과 계승이라는 두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고전관련 두 분야인 한문학과 고전소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문학 연구동향과 연구목적,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시론적인 연구로서 한문 교육 동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북한의 언어정책과 한문교육

### 1) 북한의 언어 정책과 한문연구

#### (1) 북한의 언어정책

남북의 언어학 연구는 조선어학회가 1933년에 발표한 ‘한글마춤법통일안’으로부터 시작한다. 남북한 분단 후에도 별다른 정책 없이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사용하였다. 이후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을 제정하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어 1954년의 ‘조선어철자법’, 1966년 6월의 『조선어규범집』, 1987년 5월의 『조선어규범집』(수정판) 등 크게 네 번의 변천을 겪었다. 언어정책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1966년 6월의 『조선어규범집』이다.

광복과 함께 북한은 민족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에서 언어 교육의 출발이 된 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 개교한 최초의 북한 종합대학으로 1946년 5월 25일 ‘북조선 립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창립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어 준비과정을 거쳐 1946년 10월 개교하면서 민족어 연구와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개교 문학과 의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사학과 50명, 교육학과 50명의 2배였으며, 전체 24개 학과 가운데서도 경제학과 100명과 같이 가장 많았다.<sup>1)</sup> 김일성종합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김두봉이 취임하였다. 김두봉은 정치가로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지만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제자로 1916년 『조선말본』을 발행한 대표적인 언어학자로 북한의 언어정책을 주도한 인물이었다.<sup>2)</sup>

김두봉에 의해 주도되었던 북한의 언어정책은 1966년 6월의 『조선어규범집』 이후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한 언어정책으로 전환되었다.<sup>3)</sup> 언어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김두봉의 숙청과 함께 언어 정책에서도 ‘유일사상체계화’와 관련하여

1) 전영선, 「북한의 언어학 분류체계와 연구 동향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2)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통일교육원, 2003, p.108.

3) 조오현·김용경·박동근, 『남북한 언어의 이해』, 역락, 2003, p.36.

정책이 수정되었다. 김일성은 1966년 5월 14일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를 통하여 평양어를 중심으로 한 표준어 체계 수립을 강조하였고,<sup>4)</sup>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 체계를 확립하였다.

북한은 평양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어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우리말 다듬기 사업’이었다. 서울말이 ‘남존여비사상 썩어빠진 부르주아적 생활이 지배하는 말’로서 ‘고유한 우리말은 얼마 없고 영어, 일본말 한 자어가 섞인 잡탕말’이기 때문이기에 민족어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어 제정의 명분이었기에 ‘고유한 우리말’을 찾아내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언어 정책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말 다듬기 사업’은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우리 민족어의 최고 형태’인 문화어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언어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명분이 있었다. 북한은 이를 정치적인 문제, 낡은 사상적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즉 북한의 언어는 곧 민족성과 결부된 문제로서 우리말을 지키면서 언어의 순수성을 살려 나가는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문제였다.

‘우리말 다듬기 사업’은 정무원 산하인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주관하였고,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의학·약학 분과위원회, 일반용어 분과위원회 등 18개 분과위원회에서 실제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어사정위원회는 1966년 7월 9일자 《로동신문》에 제1회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게재하면서 1973년 10월 28일 제554회까지 2~3일 간격으로 꾸준히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게재하면서 말다듬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구체적인 용례들을 홍보하였다.<sup>5)</sup>

4)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6. 5. 14. :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

5) 김석항,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p.140.

‘우리말 다듬기 사업’의 핵심은 정치용어나 과학기술 용어로서 굳어진 한자나 외래어를 제외한 한자어나 외래어를 한글 고유어로 대체하거나 풀이말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었다. 한자어가 어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언어의 특성상 주요 말다듬기 사업의 대상이 된 것은 한자어였다. 많은 한자어들이 ‘한자어는 한글 고유어로 대체하되, 한글고유어가 없을 때에는 풀이말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자어로 계속 사용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가려졌고, 고유말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많은 한자어들이 다듬어졌는데, 예를 들어 큰불(홍수), 가을걷이(추수), 무른고약(연고), 조선웃(한복), 어김돈(위약금), 세운돈(적립금), 옮겨지움(각색), 김승그림(동물화), 속감(골재), 지붕마당(옥상) 등의 말이 한자어를 대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생활용어 뿐만 아니라 행정지명을 비롯하여 식물이름 등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쳐 말다듬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국제공용어 사용이 확대된 최근까지도 민족어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민족적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sup>6)</sup>

## (2) 북한의 한문 연구

북한은 1949년 초등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한자 사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한글전용을 실시하면서, 한글 전용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교과서와 공문서 등의 발간물에서 일체의 한자 사용을 금지하였다. 1949년 이후 《로동신문》은 숫자를 제외하고는 한글전용으로 발간되었는데, 1956년 4월 16일 한글전용, 전면 가로쓰기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어 중시 정책 속에서 한문은 죽은 언어로서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학문적 대상으로서 한문학은 북한의 최고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는 1955년 강좌를 확대하면서 한문 강좌가 별도로 개설하고, 1956년 8월 어문학부에 별도의 한문학과를 개설하면서 한문학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인민을 대상으로 한 언어정책과 달리 한문

6) 《로동신문》, 「민족어를 빛내이는 위대한 령도」, 2000. 5. 22. : “우리 민족어를 끝없이 빈채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혁명성은 무엇보다 우리말과 글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있다.”

강좌가 개설된 것은 주체사상이 강조되면서 광복 이후 추진된 대소 중심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표방하면서 ‘우리식 문화’, ‘민족문화’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후 시기 종합 대학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되는 관심의 대상으로 된 다른 한 부분은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을 과학적으로 밝히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과학 문화 유산을 발굴하여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자체의 것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함에 지향된 일련의 주제들이었다.<sup>7)</sup>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적 계승을 위해서는 한문학자의 양성은 필연적인 요구였다. 마르크스 레닌의 보편적 혁명사상 속에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의 발굴이 필연적이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김일성이 1958년 4월 30일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학생들과 한 담화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발굴 보존을 강조하였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언급되는 것 역시 김하명의 「박지원에 대한 연구」, 한룡옥의 「조선고대 설화연구」, 고정옥의 「조선속담의 수집과 집대성」 등 민족문화 유산과 관련된 것이었다.<sup>8)</sup>

그러나 한문연구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목적이었던 만큼 한문학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한문학 연구 성과도 매우 미미하다. 북한 최고의 대학이며, 종합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편’에 실린 한문학 관련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병찬, 「한어 표음 문자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편)》 1권, 1956.

교수, 박사 럽종률, 「조선한자음력사의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편)》 제37권 제12호(루계198호), 1991.

김운세, 「한문문장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편)》 제38권 제10호(루계208호), 1992.

7)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1956, p.139.

8) 위의 책, p.148.

려동일, 「한문에서의 품사와 품사전환이 일어나는 몇가지 조건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편)》, 1999년 4호, 1999.

장혁철, 「한문의문사의 갈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편)》 제47권 제1호(루계 제326호), 2001.

김영수, 「15세기 전반기 한문번역문헌에 반영된 품사에 대한 분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편)》 제47권 제3호(루계 제332호), 2001.

국내에서 접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1950년대부터 2004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실린 한문학 연구 성과가 채 열 편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문연구의 현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황은 한문학이 연구대상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 상대적으로 민족고전 문학에 대한 연구는 한문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 북한에서 진행된 한문 고전 관련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상철, 「《률곡전서》의 편찬과 사료적가치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43권 제2호(루계제278호), 1997.

김봉은, 「《남파집》에 실린 시작품들의 주제사상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1999년 2호, 1999.

신창섭, 「김삿갓의 한자시에 반영된 파격적경향」, 《조선어문》 1999년 3호, 1999.

강복실, 「민족고전문헌의 한 형식으로서의 전서에 대한 몇가지 고찰」, 《조선어문》 제46권 제2호(루계 317호), 2000.

강복실, 「《은봉전서》의 편찬과정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제46권 제4호(루계 323호), 2000.

마금과, 「조선시화의 발전과 《동인시화》의 지위」, 《조선어문》 제47권 제4호(루계 제335호), 2001.

박정양, 「홍량호의 악부시가 <청구단곡>의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48권제1호(루계338호), 2002.

오희복, 「문헌자료를 통하여 본 리조시기 한자시창작의 일반적경향」, 《조선어문》 제49권 제4호(루계359호), 2003.



김희옥,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당기》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제50권 제4호(루계 371호), 2004.

북한에서 이루어진 한문학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12월 21일에는 ‘역사적인 보물고이며 김일성 민족의 만년국보’라는 주체사상 노작 전시관이 개관하였는데, 이를 비롯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북한 사회 내에서 정치적 이념화를 거쳐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한마디로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 민족의 위대성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 감정’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조선민족의 가장 큰 위대성은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대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곧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민족의 역사에 김일성 주석의 혁명 역사를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문화사업의 핵심 사업이었다. 각 분야에서 민족적 우수성을 찾아내어 혁명사상과 결합하는 사업이 시도되었다. 1994년에는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이용되도록’ 문화유산 관리를 규정한 문화유물보호법이 공포되었다.<sup>9)</sup> 1995년 평양예술단이 국립민족예술단으로 개편되면서 민족가극 전문단체가 되었고, 혁명가극 〈피바다〉의 형식이다 민족적 내용을 담은 민족가극 〈춘향전〉을 창작하였다.<sup>10)</sup>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졌고, 자연스럽게 민족 고전으로서 한문 연구가 연계되어 진행된 것이다.

## 2) 북한의 한문교육 목적과 체계

북한의 한문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한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말 다듬어 쓰기’, ‘역사연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로 제시하고 있다.

9)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령체계가 없다가 1994년에 이르러 비로서 법령으로 공포되었다.

10) 북한의 민족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전영선, 『북한 민족문화 정책의 이론과 현장』, 역락, 2005 참조.

“우리 말을 옳게 다듬어 쓰고자 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하며 우리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자고 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합니다. 한문공부를 잘하는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한문을 배우는것은 우리말을 적극 발전시키고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 있다.<sup>11)</sup>

여기서 제시한 ‘우리말 다듬어 쓰기’, ‘역사연구’는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해당하기보다는 연구자들을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 실상은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학문적 목적보다는 사상학습 교양을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

한문교육의 이러한 목표는 김일성은 문화어 표준화 사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서도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김일성은 혁명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한자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한자를 계속 써야 하겠습니까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한자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자를 만들어낸 중국사람 자신도 배우기 힘들고 쓰기 불편하여 앞으로는 버리자고 하는데 무엇때문에 우리가 그 것을 쓰겠습니까?

한자는 하나의 다른 나라 글로서 일정한 시기까지만 써야 합니다.

한자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언제 될는지 누구도 짚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미국놈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사람들이 우리 글자와 함께 한자를 계속 쓰고있는 이상 우리가 한자를 완전히 버릴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한자를 완전히 버리게 되면 우리는 남조선에서 나오는 신문도 잡지도 읽을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정한 기간 우리는 한자를 배워야 하며 그 것을 써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우리 신문에 한자를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출판물은 우리

11) 『한문 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2002), 머리말.

글로 써야 합니다.<sup>12)</sup>

국가 정책적으로는 한자어 대신 우리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명분으로 교과 과정에서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한문은 중학교(우리의 중학교)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대학교까지 기본적인 한자를 익히게 되어 있다. 배우는 한자는 중학교까지 기본 한자 2,000자이며, 대학교에서는 기본한자에 1,000자를 추가하여 익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사범대학 내 어문학부와 역사학부 1~2학년에서 한문 강의를 하고 있다.<sup>13)</sup>

북한의 중학교는 6년 과정으로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중학교와 고등중학교로 분리되어 운영되다가 통합되면서 6년 과정의 체계가 확정되었다. 한문은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주당 2시간,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주당 1시간의 교육이 이루어 진다. 중학교 6년 동안 8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총 8시간의 교육시간은 미술(2시간), 제도(2시간), 음악(4시간), 사회주의 도덕(6시간)보다 많으며 현행당정책(3시간)이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혁명활동’(3시간)이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혁명력사’(6시간)보다도 많은 시간이다. 참고로 북한하면 혁명역사나 혁명활동에 대한 수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국영수 과목으로 수학(38시간)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어·문학·한문이 각각 31시간(14시간, 9시간, 8시간)이고, 외국어가 19시간으로 세 번째로 많다. 물리(17시간)이고, 화학과 생물이 각각 12시간이다.<sup>14)</sup>

북한 한문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시를 배우거나 사서삼경과 같은 경전이나 문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東西南北)이나 상중하(上中下) 같이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를

12)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4년 1월 3일.

13) 북한의 언어생활에 대한 개관적인 이해는 전영선,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 도서출판 역락, 2006, 『제9부 언어생활』 참조.

14)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06』, p.197.

중심으로 한다.<sup>15)</sup>

이러한 실용적 차원의 접근에서 볼 때 한문교육은 한문이기보다는 한자를 익히는 것이 중심이다. 한자를 익혀 혁명사상을 분명하게 익히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자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 3) 북한의 한문교과서 분석

한문교육의 목적이 정치적 이념 교육을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것은 한문 교과서의 구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한문교과서 주 내용을 이루는 것은 생활이나 사상학습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배우는 것이다. 사상학습이나 생활에서 한자가 필요한 것은 정치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우리말다듬기 사업’을 통하여 불가피한 한자어를 제외하고 생활용어를 비롯하여 학술용어까지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생활용어를 포함하여 학술용어, 지명, 과학기술 용어를 포함하여 사람들이름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자어라는 의식이 약하거나 한자말과 고유어의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을 강화하였다.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자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인식되고 우리 말로 완전히 굳어버린 것은 그냥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방’ 같은 것은 한자말이라고 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며 따라서 그런 말들은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많이 쓰이는 ‘법칙’이란 말을 놓고보아도 당장 고쳐쓸 다른 신통한 말이 없습니다. ‘깡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 것들을 고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15) 실용성을 우선하는 것은 비단 한문뿐만 아니라 북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가령 생물의 경우 생물 자체의 특성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도 한다. 학문적으로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지가 중요하겠지만 생활에서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 중요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체육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신체발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방과 관련되어 있기에 국방체육이라는 이름으로 군사훈련과 비슷한 과목이 체육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자말과 고유어가 뜻이 같으면서도 뜻의 폭이 꼭같지 않은 것들은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와 ‘땅속’, ‘심장’과 ‘염통’은 뜻이 같지만 그 폭이 다르므로 한자말과 고유어를 다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하투쟁’이란 말을 ‘땅속투쟁’이라고 고치거나 ‘평양은 나의 심장’이란 말을 ‘평양은 나의 염통’이라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한자말까지 모조리 없애버린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유어와 한자말이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구체적경우에 따라 서로 달리 처리하여야 합니다.<sup>16)</sup>

그런데 이러한 예외용어로 한 ‘뜻이 같으면서도 뜻의 폭이 꼭같지 않은 것’들의 대부분이 정치용어이다. 에둘러 말하기는 하였지만 사상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한자어라 할지라도 수정을 금지한 것이다. 한자의 교육 역시 이러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 구성을 살펴보면 한자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 실제 정치적 용어에 대한 익힘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한문 교과서는 남한과 비슷하게 글자 생성원리, 소리와 뜻 익히기, 부수글자 익히기, 하나의 한자를 응용한 단어 만들기, 한글을 한자로 옮기기, 한자읽기, 한자 쓰기 등을 중심으로 본문, 해석,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비슷하지만 속의 내용은 다르다. 북한의 한문 교과서는 남한의 한문교과서와 같이 사서삼경이나 한시, 문집 등의 한문으로 내용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국한문 혼용으로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마치 한자가 들어간 신문을 읽어가듯이 읽도록 되어 있다.

偉大한 領導者 金正日元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고기배들을 現代化, 萬能化하고 科學的인 어로 方法을 널리 받아 들여 물고기를 많이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海洋國이다.

이 바다속에는 無盡藏한 水産資源이 있다. 그러므로 이 水産資源을 積極 開發하여 利用하는것은 우리 人民들의 福利를 增進시켜 生活을 向上시키는데서 重要的 意義를

16)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높게 살려나갈데 대하여—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6년 5월 14일.

가진다.

—『한문—고등중학교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p.17.

본문이 끝나면 새로 나온 글자 익힘이 이어진다. 한자 익힘은 의미와 독음, 한자의 구성원리와 배운 한자를 응용한 읽기와 쓰기가 들어 있다. 중학교 1학년 한문 교과서에는 글자의 구성원리에 대한 기초편이 있다. 기초편에는 한자의 생성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가 되는 과정이나 전서(篆書), 글자 쓰는 순서가 나와 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이후의 과정에서는 한문의 법칙이나 원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참고로 1학년 한문교과서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김일성의 머리말이 나오고 이어서 ‘충성의 구호’가 나온다. 본문1과는 ‘한자의 점과 획’이다. 입문에 해당하는 1학년 교과서의 특성에 맞추어 1학년 한문교과서는 한자의 생성원리나 문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과 관련한 한자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한자를 익히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형이나 형성, 회의 등의 문법부터 시작하는 남한의 한문교과서와 달리 생성원리를 배우기에 생활과 관련한 한자를 먼저 익히게 되어 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이나 인(人), 상중하(上中下)와 같이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를 22과까지 배운 다음 회의, 형성과 같은 문법을 배운다. 이어서 동서남북의 방위나 수학, 물리용어, 혁명일화에서 사용된 한자어를 배운다.

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가 기초편이라면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혁명과 관련한 한자를 배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문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한자로 김일성(金日成)을 쓰는 것을 비롯하여, 제1과 ‘金日成장군의 노래’이며, 제2과는 ‘金日成원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이고, 제3과는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봉화산’이다. 이를 시작으로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6학년까지 국한문혼용으로 혁명활동이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偉大한 領導者 金正日元帥님께서는 오늘뿐아니라 來日의 먼 앞날까지도 내다보는 千里혜안의 科學的인 洞察力과 豫見性을 지니시고 朝鮮革命과 世界革命을 勝利에로

1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6호

이끄시고 계신다.

—『한문—고등중학교 6학년』,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p.16.

偉大한 首領 金日成大元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敎示하시였다. 《南北聯邦制를 實施하는 경우 聯邦國歌의 國號는 우리 나라의 版圖에 存在하였던 統一國家로서 世界에 널리 알려 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聯邦共和國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한문—고등중학교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p.41.

最近 電子工業의 急速한 發展과 함께 集積回路와 그것을 利用한 새로운 컴퓨터들이 開發되면서 科學과 技術에서는 想像하기 어려운 問題들이 이모저모에서 解決되고 있다.

—『한문—고등중학교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p.48.

혁명역사나 혁명 활동과 관련한 문장 이외 고전이 본문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고등중학교 6학년 한문 교과서에서는 『北學議』나 왕조실록의 간단한 문장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學問之道는 無他라 有不識이면 執塗之人而問之가 可也라 僮僕이라도 多識我一字면 姑學女라. (『北學議』에서)

—『한문—고등중학교 6학년』,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p.27.

金樽美酒는 千人血이요  
玉盤佳肴는 萬姓膏라  
燭淚落時에 民淚落이요  
歌聲高處에 怨聲高라

(고전소설 『春香傳』에서)

—『한문—고등중학교 6학년』,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p.35.

본문과 글자 익힘에 이어 '연습'이 있다. 한자 연습은 앞서 배웠던 한자가 들어간 국한문 혼용의 글읽기, 한자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 배운 한자를 응용한 한자 단어 익히기 등의 연습과제가 있다. 한문교과서 연습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글을 읽으시오.

○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14(1925)년 겨울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다가 탈출하여 가독령이라는 곳에 사는 金氏의 도움을 받아 다시 팔도 구로 돌아 오시었다.

○ 항일혁명선열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一身의 안일을 바라지 않고 온갖 心血을 다 기울이었다. 그들의 고귀한 생애는 조국청사에 永久히 빛날것이다.

—『한문—중학교 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p.44

1. 다음 문장을 읽으시오.

偉대한 首領 金日成大元帥님께서 다음과 같이 敎示하시었다.

《보친보戰鬪가 가지는 가장 重要한 意義는 朝鮮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 人民들에게 朝鮮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뿐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民族的獨立과 解放을 이룩할수 있다는 信心을 안겨 준데 있다.》

주체 26(1937)年 6月 4日 밤,

· 偉대한 首領님께서 指揮하신 朝鮮人民革命軍部隊는 國內進攻作戰을 爲하여 곤장덕을 내리었다.

偉대한 首領님께서는 거리 初入에 있는 황철나무아래에 指揮處를 定하시었다.

정각 밤 10時

偉대한 首領님께서는 권총을 높이 쳐드시고 방아쇠를 당기시었다.

3. 다음 단어를 한자로 쓰시오.

폭격, 황량, 기교, 미소, 기성리론, 연료, 표사광물, 강도, 매장, 잠재력, 충복, 도료, 도탄, 고모, 예술체조, 보물, 사적지

—『한문—고등중학교 6학년』,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pp.30~31.



북한의 한문 교과서 구성의 특성상 한문 교육은 한자를 읽히고 나아가 한문을 통하여 선인의 생활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배우기보다는 혁명투쟁이나 정치생활과 관련한 한자를 익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 3. 북한의 고전소설 평가와 전승

#### 1) 고전소설과 민족적 정서

근대 이전에 창작된 고전소설을 의미하는 고전소설의 경우 ‘북한의 고전소설’이라고 할 때는 ‘북한이라는 지역에 있는 고전소설’이라는 의미가 된다. 남한에서는 고전소설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고소설, 고대소설, 구소설, 전기소설, 이조소설, 이조시대소설, 조선소설, 조선고소설, 조선왕조소설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대체로 1970년대 이전까지 여러 용어를 사용하다가 1970년대 들면서 고전소설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고전소설이라는 용어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sup>18)</sup>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서는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이나 서사적인 묘사방식으로 인간의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속성은 같이 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전소설은 오랜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적 내용이나 예술적 형식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소설은 서사적인 묘사방식으로 인간과 그 생활을 보여주는 문학의 한 형태이다. 어떤 인간의 생활을 그리며 얼마나 깊이 있게 묘사하는가 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생활을 서사적인 방식으로 그리는 점에서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이나 다를 바가 없다.<sup>19)</sup>

17) 참고로 ‘국어’ 교과서도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비슷하다. “중기사수가 되겠다고 中隊長을 못 살게 졸라댔다는 전사, 중기사수가 된지 한달도 못되어 連隊에서 있는 중기관총분해결합경기에서 단연 1등을 차지한 전사, 이런 戰士가 살을 예이는 듯한 추위에도 자기의 毛布를 重機에 덮어주고있지 않는가”(『국어』 중급2, ‘21 사랑하는 중기와 함께’ 중에서).

18) 최용권, 『북한의 고전소설 연구』, 지식산업사, 2000, p.38.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속성이 같다고 보는 것은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보는 기본적인 문학관과 연관된다. 문학이 인간학이란 의미는 문학이 인간의 생활과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고전소설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거라는 시대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발전시켜 민족적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전소설을 포함한 고전문학이 모두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한다면 남은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서 비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찾아서 발굴하여 연구할 것이 강조된다.

지난날의 문학작품에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덮어놓고 다 빼버린다면 우리의 역사는 남을 것이란 하나도 없을 것이며, 인민은 과거 아무것도 창조해 놓은 것이 없는 민족이 된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고, 계승이 없는 혁신을 생각할 수 없듯이 사회주의 민족문학예술은 결코 빈터 위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사회주의 민족문학예술은 지난날의 문학예술 가운데서 낡고 반동적인 것을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성격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토대 위에서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민족발전의 합법적 과정이다. 민족문화유산을 평가할 때 개별적 일꾼들의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하지 말고 해당 부문 일꾼들이 집체적으로 모여 그 유산이 만들어진 시대와 사회역사발전 환경, 혁명의 요구를 연구한 기초 위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민족문화유산을 그저 허무주의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sup>20)</sup>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고전소설의 민족적 특성과 형식을 현대소설과 연관 지으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북한은 소설의 기본적인 특성을 민족적 정서에

19) 이동윤,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進歩的 特性」, 김일성종합대학학보(1994. 3), p.12, 여기서는 최용권, 『북한의 고전소설 연구』(지식산업사, 2000, p.39)에서 재인용.

20) 김정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꾼들과 한 담화」, 1970. 3. 4. 이 교시는 김일성의 교시 「력사 유적과 유물 보존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1970년 2월 17일)가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표한 실무지도로 김일성의 교시를 이어 문화유산 관련 사항을 더욱 체계화함으로써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었다.

서 찾는다. 소설의 주인공은 아름답고 고상한 성품을 체현한 인물이며, 순탄한 줄거리로서 감정조작을 통하여 극성을 높이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sup>21)</sup>

이런 점에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의 현대소설은 주인공을 형상함에 있어 도덕적이고 희생적인 모범적인 전형성이 드러나는 인물이다. 긍정적인 인물은 주체사상으로 충실히 무장한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완벽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이 대대로 충신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면서 충명하여 글을 깨우침에 막힘이 없고, 문장은 물론 생김새도 준수한 문무를 두루 갖춘 이상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사건 구성에서도 갈등 문제가 분명하다. 남한의 소설처럼 엽기적인 주제나 연애나 불륜같은 것을 소재로 한 작품이 없다.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를 두고서 갈등하는 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고전소설에서도 대립의 각은 분명하다. 충신과 간신, 나라를 지키려는 자와 나라를 좀먹게 하는 자들의 대립이 분명하다.

북한 소설은 구성에 있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발단—전개—절정—결말에 이르는 순차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떻게 결말지어 질 것인가가 예상된다. 남한에서 흔히 나오는 반전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결말구조 같은 것은 없다.

또한 북한의 현대소설이 많은 부분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극적인 구성이 많다는 점도 고전소설과 유사한 점이다. 북한 소설이 극적인 장면이나 감성에 의한 전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조작’, ‘감성의 선’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문학이 “생활의 논리에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을 흐름을 보여주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up>22)</sup> 남한의 시각에서 볼 때 당의 임무를 철저하게 묵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인물, 주인공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할 때 나타나 사건을 해결해 주는 지도자의 등장은 논리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감성을 올리는 극적 효과가

21) 전영선, 『북한 민족문화정책의 이론과 현장』, 역락, 2005, p.280.

22) 최용권, 『북한의 고전소설 연구』, 지식산업사, 2000, p.227.

크기에 현대소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 2) 고전소설에 대한 평가

북한에서 문학교육은 시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고전소설은 넓은 범위의 중세소설문학의 한 범주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평가하는 대표적인 중세소설문학으로 문학교과서에 올라 있는 작품은 「임진록」, 「재판받는 쥐」, 「홍길동전」, 「춘향전」, 「량반전」, 「채봉감별곡」 등이다.

고전소설을 포함하여 한시나 설화 전설의 제목들은 의역으로 소개된다. 제목을 풀어서 소개하는 것은 인민성의 원칙 때문이다. 인민성의 원칙이란 간단히 말해 문학예술이 공산주의를 완성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술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이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인민대중이 알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인민이 소망하는 것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한문으로 된 고전작품들을 한문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인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인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소설문학의 발전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남한과 일치한다. 그러나 최초의 소설문학 작품이나 소설문학의 발전역사에 대한 견해, 작품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르다.

고전소설의 발달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소설에 해당하는 ‘중세소설’은 ‘이야기 형식’의 작품으로부터 유래하였고, 일찍부터 발전한 설화문학이 중세소설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설화문학의 영향으로 고구려 시기에 이르러 「온달전」과 같은 고전소설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구려에서 「온달전」이 나온 이후 발해, 「후기 신라시기<sup>24)</sup>에 이야기 작품이 더 많이 나타나 설총의 「화왕계」나 최치원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두 여자

23) 전영선, 「북한 고전문학의 전정성과 특성 연구」, 《어문학》 91집, 한국어문학회, 2006, pp.40~41.

24) 후기 신라시기는 통일신라시대를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후기신라시대라는 용어 대신 후기신라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쪽에서는 고구려에 이어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발해가 건국되었고,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던 남북국시대로 평가한다. 북한의 역사관에 의하면 ‘우리 나라 첫 통일국가는 신라가 아니라 고려이다.

의 무덤』과 같은 작품이 나타났고, 이야기 형식은 이어서 계속 발전하여 15~16 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여 김시습의 『금오신화』와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오신화』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당시 사회에 있었거나 있을 수 있는 생활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이야기 줄거리, 인물성격, 묘사 등에서 소설의 형식을 새롭게 갖추고 주제사상을 예술적으로 잘 밝혀냈기 때문이다.<sup>25)</sup>

이후 소설문학은 '임진조국전쟁'(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소설이 등장하였고, 이전과 비교할 때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고 평가한다. 소설사의 이러한 발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인민들의 역량이 증대되었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소설이 들어와서 읽혀졌고, 인민들은 자신의 문학적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소설의 출현을 갈구하였다는 것이다.

소설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 성숙되면서 한편에서는 '진보적 작가'인 허균, 김만중의 작품이 창작되었고, 한편으로는 「임진록」이나 「전우치전」과 같이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창작되면서 소설이 크게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17세기 중세소설의 창작과 발전은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평가되는데, 소설 창작이 왕성해지면서 소설의 주제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형태도 발달하여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이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17세기 초의 작품으로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하는 것은 「홍길동전」이다. 「홍길동전」에 대해서는 “「홍길동전」은 1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방에서 양반복장을 하고… 농민군을 지휘하여 통치배들과 싸운 실지 있는 인물인 홍길동을 원형으로 하여 창작되었다. 그러나 실지 있는 홍길동의 투쟁내용과 소설내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sup>26)</sup>고 평가한다.

17세기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이다. 「사씨남정기」는 김만중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17세기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한다. 「사씨남정기」에 대한 높은 평가는 작품성보다는

25) 『문학 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1997, p.37.

26) 위의 책, p.53.

‘인간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봉건축척제도가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봉건지배계급의 죄악과 봉건제도의 부패상을 비판’하였다는 사회적 의미에 근거한 것이다.

17세기에는 「사씨남정기」와 같이 ‘봉건지배계급의 죄악과 봉건제도의 부패상을 폭로한 소설’이 창작되는 한편으로 ‘반침략애국적 주제’의 소설도 창작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임진록」이나 「박씨부인전」, 「림경업전」과 같은 작품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북한에서는 외세 침략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은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들 작품에 반영된 애국주의가 바로 민족적 정서와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고전문학 작품에 그려져 있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성격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것은 첫째로, 향토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 정신이 강하며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용맹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sup>27)</sup> 따라서 애국주의를 반영하는 것은 민족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북한 소설에서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현대소설 창작에도 적용된다. 다만 고전소설의 애국주의가 주로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다면 현대소설에서 애국주의는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 중세소설은 19세기 중반까지이며, 19세기 후반부터는 계몽기소설로 규정된다. 중세소설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18세기는 어느 시기보다 왕성하고 다양한 작품이 창작된 시기로 평가한다. 18세기에는 한문소설과 함께 한글소설도 많이 창작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국문소설이 한문소설보다 사상예술적으로 더 우수하였고 따라서 인민들 속에도 더 널리 알려졌다’고 평가한다.

“18세기 소설문학은 박지원의 「량반전」과 같은 단편소설들과 함께 인간들의 생활을 폭넓게 묘사한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중편소설들과 「옥루몽」, 「사성기봉」과 같은 장편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창작’되었으며,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에 비하여 국문으로 쓰여진 소설이 더 많이 창작된 것”<sup>28)</sup>을 특징으로 꼽고 있다.

소설의 구성이나 내용도 이전에 비교하면 짜임새가 높아지고 묘사수준도 더

27) 리창유, 「우리 식 문학건설에서 고전문학이 노는 중요한 역할」, 『조선고전문학연구 I』,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참조.

28) 『문학 고등중학교 4』, 앞의 책, p.39.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18세기의 소설은 ‘봉건통치배의 죄악을 폭로’한 작품, ‘나라를 지켜 싸운 우리 인민들의 투쟁’,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 등의 다양한 주제로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국문소설로는 「토끼전」, 「흥부전」, 「심청전」, 「춘향전」, 「옥루몽」, 「사성기봉」, 「쌍천기봉」 같은 작품이 있고, 다수의 한문소설도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국문소설 가운데서는 「춘향전」이 대표적인 소설로 평가되고, 한문소설 가운데서는 박지원의 작품인 「양반전」, 「허생전」 등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춘향전」은 ‘주인공인 춘향과 이몽룡의 관계를 통하여 봉건사회에서 양반과 상민 사이의 신분적 불평등을 없애고 재산과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청춘남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sup>29)</sup> 박지원은 실학파로서 ‘실사구시’를 중시하면서 사회적 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우수한 문학예술 작품을 창작한 근대문학의 여명기 개척에 기여한 사람의 한 명으로 평가한다.

19세기에 들어서 근대소설의 맹아적 요소를 갖춘 작품으로 「배비장전」과 「채봉감별곡」을 높이 평가한다. 「배비장전」은 구전소설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으로 ‘봉건사회의 말기’ 양반들의 위선과 부패를 날카롭게 풍자한 작품으로 이전의 소설들이 보여준 중세기적 환상의 수법이 사라지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채봉감별곡」은 다른 ‘중세소설’에 비하여 환상의 수법이 없어졌으며, 언어 문체면에서도 한문투가 상당할 정도로 없어지고, 입말(구어)을 많이 사용하고, 묘사에서도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 3) 인민교양을 위한 개작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읽는 고전소설은 현대성에 맞추어 개작된 고전소설이

29) 김일성,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340 : “이 작품은 량반의 아들이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의 딸과 연애를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봉건사회에서 잘사는 사람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사이, 량반과 상민사이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남녀청년들이 재산과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진보적인 작품이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량반계급의 신분적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자체가 다른아닌 량반의 아들이며 이 작품에 그려진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정신세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것입니다.”

다. 고전소설을 원전 그대로 읽지 않고, 개작작업을 거치는 것은 고전소설이 갖는 시대적 한계 때문이다. 고전소설이 처음 창작되었을 때는 당대사회에서 진보적이고 우수한 작품이었던 지 모르지만 시대가 흐른 오늘날에는 인민들의 교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족고전의 수용의 당위성이 강조되지만 인민 교양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전소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작을 추진한다. 그렇다면 옛 고전소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수정하였는가? 고전소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성이다. 북한이 고전문학을 수용하면서 내세운 기준으로 가장 큰 비판으로 삼은 것은 계급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계급적 관점이란 착취와 피착취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며, 일부 모순을 각성한 인물들도 그들 자신이 속한 계급적 한계로 인해 피착취계급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높게 평가하는 「허생전」에 대해서 “작품은 일련의 본질적제한성을 갖고 있다. 작품은 농민봉기군들의 투쟁에 동정을 표시하면서도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근본요구를 대변하지 못하였다.”<sup>30)</sup>고 평가한 것이나 「춘향전」에 대해서 “역사적 및 시대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봉건적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지 못하다”<sup>31)</sup>고 평가한다.

둘째, 비과학적인 요소이다. 고전소설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점이나 종교에 의탁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의 본질적인 문제로 비판한다. 「구운몽」에 대해서 “작품의 제한성은 또한 주인공 양소유가 인간세계에서 보낸 자기의 지난날의 생활을 일장춘몽으로 보면서 팔선녀들과 더불어 다시 불도를 닦아 이른바 극락세계에로 가려고 하는데서도 나타난다”<sup>32)</sup>고 지적하였다. 「심청전」에 대해서도 “소설에서는 또한 적지 않게 종교적이며 미신적인 형상들이 그려지고 있다. 작품에서는 산천에 제를 지내고 심청을 낳는 것, 꿈풀이로 행복과

30) 정홍교 외,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6, p.174.

31) 박현균 편집, 『고전소설해제』, 문예출판사, 1991, p.439.

32) 정홍교 외,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 앞의 책, p.88.



불행을 점치는 것, 심청의 얼굴을 그린 족자의 변화를 보고 그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 남정장사군들이 향로의 안전을 위하여 처녀를 바다제물로 바치고 제를 지내는 것 등 종교적이며 미신적인 형상들이 적지 않게 묘사되어 있다.”<sup>33)</sup>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고전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夢兆'나 꿈풀이 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셋째, 고전소설 공식구인 서두와 결말의 전개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특히 작품의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의 구조에 대해서는 문학적으로 전통이 없다는 비판이다.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주의적이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당대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끝내는 것은 중세기적 사고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넷째, 중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이백, 두보 같은 중국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평가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적 입장이 분명하게 반영된 작품이다. 주인공이 하층민으로서 사회적 신분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둘째, 사회비판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셋째, 우리 말과 우리 글, 우리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판소리계 소설처럼 구어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거나 평안도, 함경도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고전소설 작품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향전 : 「춘향전」에서는 그 어떤 환상적이며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리조말기의 불합리한 사회상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반대하고 엄연한 신분적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는 두 청춘남녀의 성격과 운명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sup>34)</sup>

심청전 : 심청일가의 기막힌 생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착하고 깨끗한 마음씨와 근면한 품성을 키워온 심청의 형상을 보여준 부분은 이 작품의 전반적 흐름에서 없

33) 박현균 편집, 『고전소설해제』, 앞의 책, pp.228~229.

34) 박현균 편집, 『조선고전문학연구 I』,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p.270.

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진실하고도 구체적이며 생활적인 형상이 있음으로 하여 작품의 후반부에서 보는 심청의 운명과 그의 행복에 대한 량만주의적인 이야기가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되며 감동을 주는 것이다.<sup>35)</sup>

구운몽 : 사람들은 누구도 봉건적 애정률리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데 의의가 있다.<sup>36)</sup>

홍길동전: 국문소설 『홍길동전』은 17세기 조선봉건사회의 첨예한 모순이 얽혀있는 사회정치적 문제를 주제사상적 내용으로 하고있는 점에서, 그 주제사상적과제를 해명하는데 북송시킴으로써 한 인간의 곡절 많은 생애를 생활과 성격 발전의 논리에 맞게 실감있는 하나의 화폭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그것도 인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국문으로 표기한 큰 형식의 소설을 창작한 그 예술적 성과에 있어서 그리고 창작자의 이름이 명확히 밝혀져있다는 점에서 조선문학사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세계 소설 역사에서도 새로운 현상으로 된다.<sup>37)</sup>

사씨남정기 : 비교적 생동한 인간성격과 생활화폭의 창조를 통하여 봉건사회의 악덕을 폭로비판한 우수한 작품<sup>38)</sup>, 우리말의 능숙한 사용에 의한 비교적 생동한 인간성격과 생활화폭의 창조를 통하여 봉건사회의 악덕을 폭로한 점에서 당시로서는 일정한 진보적 의의를 가지었으며 그 이후시기 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sup>39)</sup>

양반전 : 봉건사회말기의 계급관계 특히 몰락해가는 량반들과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과 관련하여 새로 대두하는 부유한 계층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량반들의 부패무능성과 몰락상, 파렴치한 략탈과 안일사치한 생활을 풍자적으로 폭로비판하고있다.<sup>40)</sup>

35) 위의 책, p.273.

36) 최옥희, 『고전문예작품사화집』, 예술교육출판사, 1991, p.57.

37) 김하명, 『조선문학사(17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2, p.271.

38) 박현균 편집, 『고전소설해제』, 앞의 책, p.130.

39) 정홍교 외,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6, p.80.

허생전: 봉건말기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위기를 반영하면서 그를 타개하기 위한 실학자들의 경제실용사상을 주장하고있다.<sup>41)</sup>

홍부전 : 주인공들의 형상에 이르러서는 봉괴기의 봉건조선사회의 착취계급과 착취받는 인민들의 성격적특징이 체현되었으며 이들의 호상관계는 설화에서와 같이 다만 선과 악의 투쟁이라는 추상적개념을 체현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의 여러 계급들의 생활과 그 성격적특성을 진실하게 재현하였다.<sup>42)</sup>

박씨부인전 : 사상적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반침략애국정신이 다.<sup>43)</sup> 반침략애국사상을 반영하고 그것을 조선녀성의 슬기, 참된 아름다움과 결합시킨 중세소설<sup>44)</sup>, 17세기 전반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기본주제로 설정하고 애국주의사상과 민족적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sup>45)</sup>

고전소설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개작과정에서 고전소설의 수정사항으로 반영되었다. 고전소설 개작과 관련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앞서 평가한 좋은 점들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계급적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개작하는 것이었다.

또한 고전에서 중심적인 주제를 '애국주의'에 두고서, 외세 침략에 대해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sup>46)</sup> 흥미로운 것은 외세가 대부분 일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고전소설의 대부분이 오랑캐로서 북쪽지역의 민족인 말갈, 거란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고전소설을 개작하면서 정서적으로 대립의식이 많은 일본을 심리적 대응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40) 위의 책, p.167.

41) 위의 책, p.172.

42) 위의 책, p.111.

43) 박현균 편집, 『고전소설해제』, 앞의 책, p.27.

44) 박현균 편집, 『고전소설해제』, 위의 책, p.29.

45) 정홍교 외,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 앞의 책, p.47.

46) 김하명, 『조선문학사(17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63 : “우리의 소설문학은 자기 발전의 길에서 우리 인민의 남달리 강한 애국심을 반영하였으며 그것은 즐거운 민족적 전통으로 되었다. 『임진록』, 『박씨부인전』, 『림경업전』, 『달천몽유록』 등 17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들은 모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반침략적 애국투쟁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그 간고한 투쟁속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된 인민들의 미학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발전하였던만큼 애국심은 이 작품들의 주제사상적 내용을 관통하는 기본지향을 이루고 있다.”

개작에서는 또한 민족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한자식 표현이나 지명, 인물들을 우리 나라의 지명이나 인물로 바꾸었다.<sup>47)</sup>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작된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로 확산하거나 인민들의 교양을 위한 책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북한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정통성을 계승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혁명문화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고전소설의 이름으로 제한적으로나마 나타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 4. 결론

이상으로 북한의 한문학 연구 동향과 한문교육, 그리고 고전소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한문이나 고전소설은 학문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북한 문학 연구의 역량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가 북한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현대문학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한문연구나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1966년 북한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와는 다른 평양말을 새로운 언어표준 체계로서 문화어를 도입하면서 강조한 것이 ‘언어의 순수성’이었는데, 한자는 우리 말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된 우리말 다듬기 사업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바로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었다.

우리말 중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자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기본적인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문 교육은 한문의 문법이나 다양한 문장을 배워 독해능력을 향상보다는 혁명에 필요한 용

47) 조령출이 윤색한 「춘향전」의 대목을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정송강이 금강산을 보지 않았다면 어찌 그 유명한 「관동별곡」을 쓸수 있었으며 정지상이 평양 대동강을 보지 않았다면 어찌 그 훌륭한 「납포비가」를 쓸수 있었겠느냐. 백두산에 남이장군의 시가 있고 남해 한산도에 리순신 충무공의 시가 있다”는 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영선, 『고전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남북한의 <춘향전>』(문학마을사, 2003), pp.249~252 참고.

어를 배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고전소설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오늘날에 살린다는 차원에서 호명되고 있다. 고전소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원형을 유지한 고전소설은 박제된 연구대상으로만 의미가 있다. 고전소설이 인민의 교양을 위해 호명될 때는 북한의 이념적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된다. 수정 보완되는 내용은 사건전개에 충실한 내부의 개작과 같은 문학적 측면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계급의식을 분명히 드러내느냐 하는 사상적인 측면이다. 즉 계급성에 얼마나 충실하고, 애국적인 내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가 현대적 호명의 기준이 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한문학 연구나 고전소설 연구는 남한의 연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문이나 고전소설 뿐만 아니라 시가문학이나 구비문학에 대한 입장과 거리도 크다. 민족문화의 복원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로동신문》, 「민족어를 빛내이는 위대한 령도」, 2000. 5. 22.
-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1956.
- 『문학 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1997.
- 『한문 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2.
-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통일교육원, 2003.
- 김일성,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일성,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언어학자들과 한 대화」, 1964년 1월 3일.
-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언어학자들과 한 대화」, 1966년 5월 14일.
-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대화」, 1970. 3. 4.
- 김하명, 『조선문학사(17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리창유, 「우리 식 문학건설에서 고전문학이 노는 중요한 역할」, 『조선고전문학연구 I』,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박헌균 편집, 『고전소설해제』, 문예출판사, 1991.
- 박헌균 편집, 『조선고전문학연구 I』,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이동윤,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進歩의 特性」, 《김일성종합대학학보》 1994년 3호, 1994.
- 전영선, 「북한 고전문학의 전정성과 특성 연구」, 《어문학》 91집, 한국어문학회, 2006.
- 전영선, 「북한의 언어학 분류체계와 연구 동향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4집, 2008.
- 전영선, 『고전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남북한의 <춘향전>』, 문학마을사, 2003.
- 전영선,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 도서출판 역락, 2006.
- 전영선, 『북한 민족문화정책의 이론과 현장』, 역락, 2005.
- 정홍교 외,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6.
- 조오현·김용경·박동근, 『남북한 언어의 이해』, 역락, 2003.
- 최옥희, 『고전문예작품사화집』, 예술교육출판사, 1991.
- 최웅권, 『북한의 고전소설 연구』, 지식산업사, 2000.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06』.

Abstract

## Chinese writing research and Chinese writing educational of North Korea and classical novel research

Jeon, Young-sun

North Korea classifies Chinese writing with Archaism. The Chinese writing education is the level which learns a Chinese character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sees a Chinese writing negatively. Language policy of North Korea is negative in Chinese writing research and Chinese character education. North Korea emphasized the purity of language at 1966 when introduces cultural language.

The core of the trimming language enterprise was to Change a borrowed word with our language. The enterprise which is important is to change a Chinese writing with our language. In spite of Our language first of all policy, The Chinese character actually was necessary. Consequently From junior high school 1 grade, the Chinese character is taught. Learning revolutionary words is more important than Grammar and comprehension in Chinese character education of North Korea.

Classical novel Is researched from the viewpoint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There are two kind meaning in classical novel. the one is made in old days, the other is to be dramatized In order to be culture the people.

When it comes to dramatizing the classical novel, the important thing is reflecting a class consciousness well. The standard which is important the class characteristic appears well, including a patriotism.

주제어 : 북한(North Korea), 북한교육(North Korea education), 한자(Chinese writing), 북한의 한문교육(Chinese writing education of North Korea), 한문(Chinese writing), 고전소설(classical novel), 북한문학(North Korea literature)